

# 한국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가

- 일시: 2021년 9월 15일 (수) 오전 10시
- 장소: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주최: 자유기업원

- 축사: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 발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토론: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발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47위  
2010년 대비 15위 하락**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발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47위  
2010년 대비 15위 하락**

 자유기업원

James Gwartney, Robert Lawson,  
Joshua Hall & Ryan Murphy

with Justin T. Callais, Rosemarie Fike,  
Vincent Geloso, Nijdar S. Khalid, Fred  
McMahon, & Martin van Staden



**ANNU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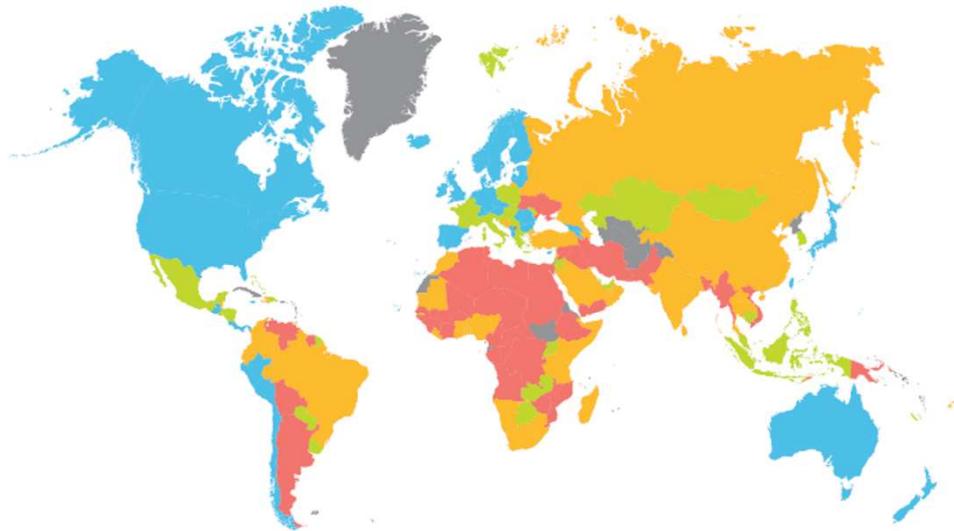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1**

# The Economic Freedom Network(8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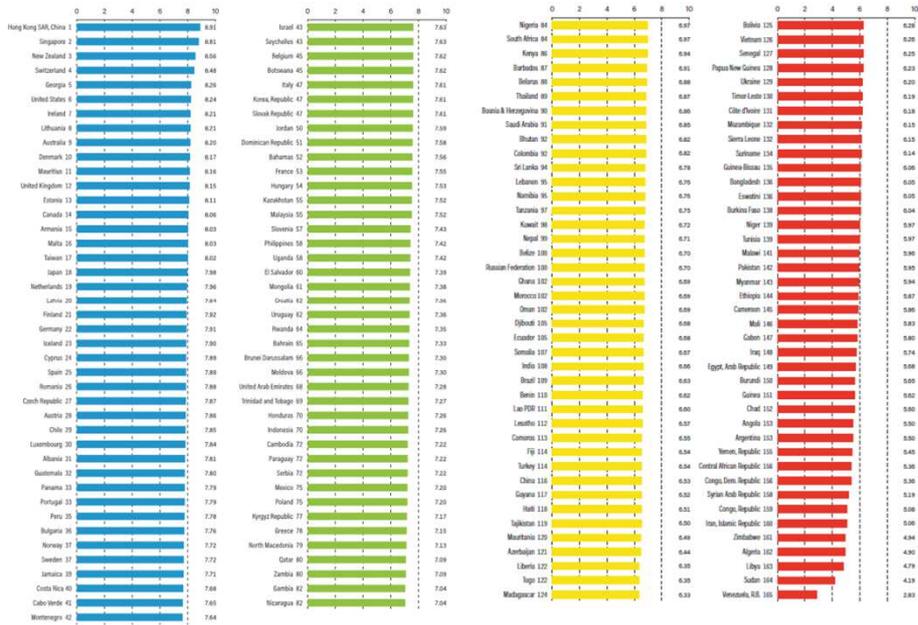
## Co-publishers of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Afghanistan	Afghanistan Economic and Legal Studies Organization (AELSO)	Kazakhstan	IDEA (Institute for Development and Economic Affairs)
Albania	Albani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CER)	Kenya	Eastern Africa Policy Centre
Argentina	Fundación Libertad	Korea, South	Center for Free Enterprise
Armenia	Centre of Political, Legal and Economic Research and Forecasting (PLERF)	Kosovo	Group for Legal and Political Studies
Australia	Institute of Public Affairs	Kyrgyz Republic	CAFMI (Central Asian Free Market Institute)
Azerbaijan	Center for Economic and Political Research	Lithuania	Lithuanian Free Market Institute
Bahamas	The Nassau Institute	Malaysia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conomic Affairs (IDEAS)
Belarus	Scientific Research Mises Center	Mali	The Centre Kassoum Coulibaly
Belgium	The Ludwig von Mises Institute-Europe	Mexico	Caminos de la Libertad
Bolivia	Política Públicas para la Libertad (POPULI)	Mongolia	Open Society Forum
Bosnia and Herzegovina	Center for Advancement of Free Enterprise	Montenegro	The Institute for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IPER)
Brazil	Instituto Liberal do Rio de Janeiro	Nepal	Samridhi, The Prosperity Foundation
Bulgaria	Institute for Market Economics	New Zealand	The New Zealand Initiative
Burkina Faso	Le Centre des Affaires Humaines (CEDAH)	Nicaragua	Nicaraguan Foundation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UNIDES)
Burundi	Centre for Development and Enterprises Great Lakes	Nigeria	Initiative of Public Policy Analysis
Canada	The Fraser Institute	North Macedonia	The Institute for Research and European Studies (IRES)
Chile	Instituto Libertad y Desarrollo	Norway	Center for Business and Society Incorporated (Cvita)
Colombia	Instituto de Ciencia Política	Pakistan	Alternate Solutions Institute
Côte d'Ivoire	Audace Institut Afrique	Palestine	Pal-Think for Strategic Studies
Croatia	The Institute of Economics	Panama	Fundación Libertad
Czech Republic	Liberální Institut	Paraguay	The Fundación Issos para la Libertad y el Desarrollo
Denmark	Center for Politiske Studier (CEPOS)	Peru	Centro de Investigación y Estudios Legales (CITEL)
Dominican Republic	CREES (Centro Regional de Estrategias Economicas Sostenibles)	Philippines	Center for Research and Communication
Ecuador	Instituto Ecuatoriano de Economía Política	Poland	Centrum IM, Adama Smitha
Egypt	The Egyptian Center for Public Policy Studies (ECPPS)	Portugal	Instituto +Liberdade
Ethiopia	Teachings of Entrepreneurship on Antipoverty Movement (TEAM)	Romania	Center for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Eleutheria (CAD)
Finland	Libera Foundation	Russia	Institute of Economic Analysis (IEA)
France	Institut Economique Molinari	Serbia	Libertarian Club - Libek
Georgia	New Economic School - Georgia	Singapore	Adam Smith Center
Germany	Liberalas Institut	Slovak Republic	The F.A. Hayek Foundation
Ghana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Slovenia	Visio Institute
Greece	KeFIM - Center for Liberal Studies - Markos Dragoumis	South Africa	The Free Market Foundation (Southern Africa)
Guatemala	Centro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Nacionales	Sri Lanka	The Pathfinder Foundation
Haiti	Catch Up Haiti	Sudan	Nile Institute of Economic Studies
Honduras	Fundación Eléutera	Sweden	Timbro
Hong Kong	Hong Kong Centre for Economic Research	Switzerland	Liberalas Institut
Hungary	Free Market Foundation	Tajikistan	Tajikistan Free Market Centre
Iceland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RSE)	Tanzania	Uhuru Initiative for Policy & Education
India	Centre for Civil Society	Trinidad and Tobago	Arthur Lok Jack Graduate School of Business,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Indonesia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Turkey	Association for Liberal Thinking
Iraq	Iraqi Institute for Economic Reform	Ukraine	Bendukidze Free Market Center
Israel	Jerusalem Institute for Market Studies	United Kingdom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
Italy	Centro Einaudi	United States of America	Cato Institute
		Uruguay	Centro de Estudios para el Desarrollo
		Venezuela	Center for the Dissemination of Economic Knowledge (CEDICE)
		Zambia	Zambi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Analysis (ZIPPA)



● MOST FREE    
 ● 2ND QUARTILE    
 ● 3RD QUARTILE    
 ● LEAST FREE

### 경제자유지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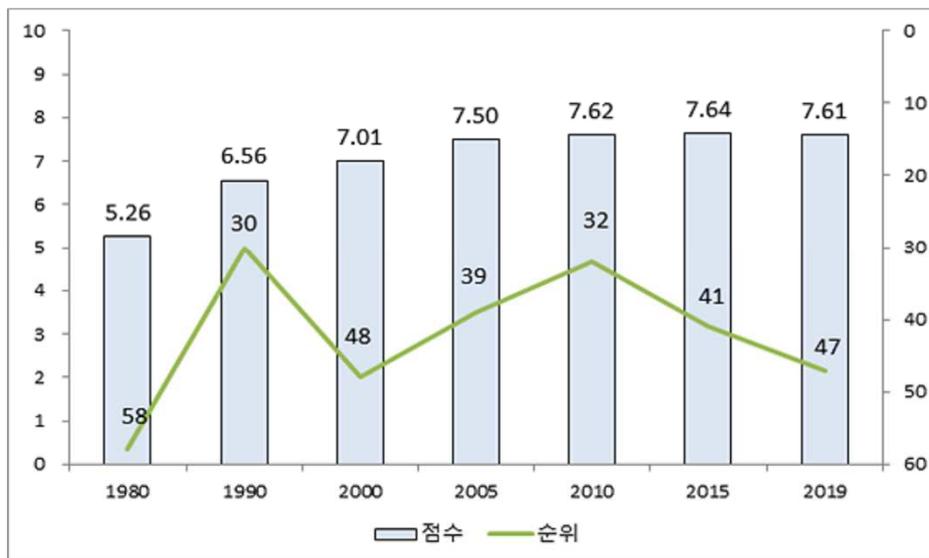
### 주요 국가의 경제자유지수 추이 (연도별)

순위	국가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19
1	홍콩	8.80 (1)	9.06 (1)	8.81 (1)	8.97 (1)	9.03 (1)	8.96 (1)	8.91 (1)
6	미국	8.36 (2)	8.63 (2)	8.73 (3)	8.52 (3)	8.14 (6)	8.29 (6)	8.24 (6)
18	일본	7.50 (7)	8.14 (8)	8.03 (14)	7.99 (14)	7.84 (17)	7.91 (21)	7.98 (18)
22	독일	7.70 (6)	7.85 (11)	7.94 (17)	7.81 (19)	7.84 (17)	8.01 (16)	7.91 (22)
47	한국	5.26 (58)	6.56 (30)	7.01 (48)	7.50 (39)	7.62 (32)	7.64 (41)	7.61 (47)
53	프랑스	6.40 (24)	7.17 (20)	7.67 (25)	7.57 (32)	7.74 (23)	7.69 (38)	7.55 (53)
116	중국	4.23 (94)	3.71 (107)	5.48 (107)	5.82 (118)	6.02 (123)	6.24 (120)	6.53 (116)

### 주요 국가의 경제자유지수 추이 (분야별, 2019년)

순위	국가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시장 규제	분야별			종합
							금융 규제	노동 규제	기업 규제	
1	홍콩	8.42 (9)	7.5 (20)	9.7 (12)	9.6 (1)	9.3 (1)	9.9(10)	9.4(1)	8.6(5)	8.91 (1)
6	미국	7.40 (52)	7.5 (19)	9.7 (15)	7.8 (64)	8.7 (6)	9.0(66)	9.0(2)	8.1(24)	8.24 (6)
18	일본	6.06 (122)	7.7 (18)	9.5 (33)	8.3 (40)	8.3 (14)	8.7(82)	8.2(11)	8.2(20)	7.98 (18)
22	독일	6.00 (125)	7.7 (14)	9.4 (47)	8.3 (38)	8.1 (26)	8.3(91)	7.5(39)	8.4(7)	7.91 (22)
<b>47</b>	<b>한국</b>	<b>6.52 (99)</b>	<b>6.6 (33)</b>	<b>9.6 (29)</b>	<b>8.0 (53)</b>	<b>7.4 (70)</b>	<b>9.3(43)</b>	<b>4.8(151)</b>	<b>8.1(25)</b>	<b>7.61 (47)</b>
53	프랑스	5.08 (155)	7.2 (25)	9.4 (46)	8.6 (18)	7.6 (58)	8.9(69)	5.9(108)	7.9(32)	7.55 (53)
116	중국	6.08 (121)	5.2 (82)	8.4 (93)	6.7 (106)	6.3 (138)	6.9(137)	5.5(123)	6.6(97)	6.53 (116)

###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와 순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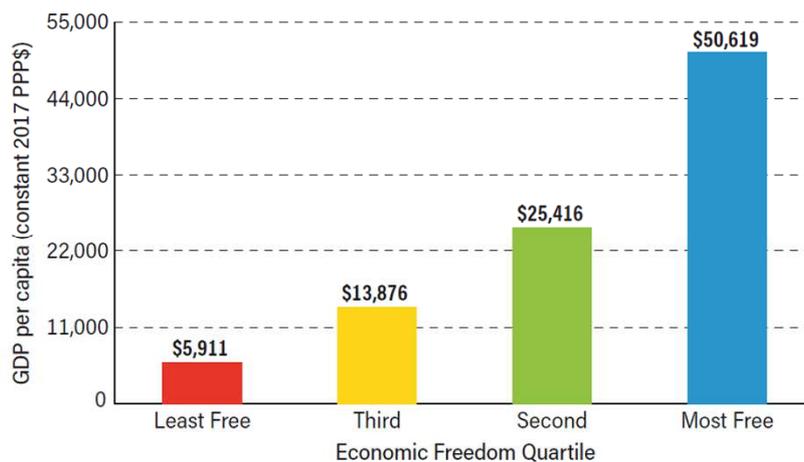
##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

연도	전체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금융규제	노동규제	기업규제
1980	5.26(58)	6.42	4.11	5.29	5.49	5.00	6.13	-	-
1990	6.56(30)	7.11	5.83	6.59	7.28	5.96	8.33	3.59	-
2000	7.01(48)	7.20	6.15	8.27	6.84	6.59	8.33	3.76	7.68
2005	7.50(39)	7.10	6.63	9.53	7.07	7.17	9.33	4.84	7.33
2010	7.62(32)	7.28	6.33	9.58	7.63	7.30	9.33	4.68	7.88
2015	7.64(41)	6.93	6.50	9.66	7.69	7.40	9.32	4.74	8.14
2019	7.61(47)	6.52 (99)	6.60 (33)	9.57 (29)	7.99 (53)	7.39 (70)	9.33 (43)	4.77 (151)	8.06 (25)

주: ( )는 순위

## 경제자유지수와 1인당 소득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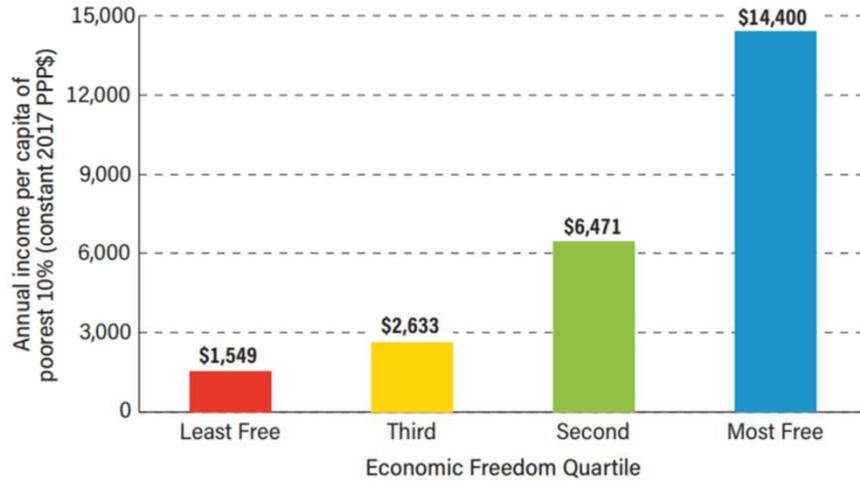
Countries with greater economic freedom have substantially higher per-capita incomes.



Sources: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1 Report*; World Bank, 202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database].

## 경제자유지수와 최빈곤층의 소득 10%의 관계

The amount of income, as opposed to the share, earned by the poorest 10% of the population is much higher in countries with higher economic freedom.



Sources: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1 Report*; World Bank, 202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database].

THANK YOU

[토론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4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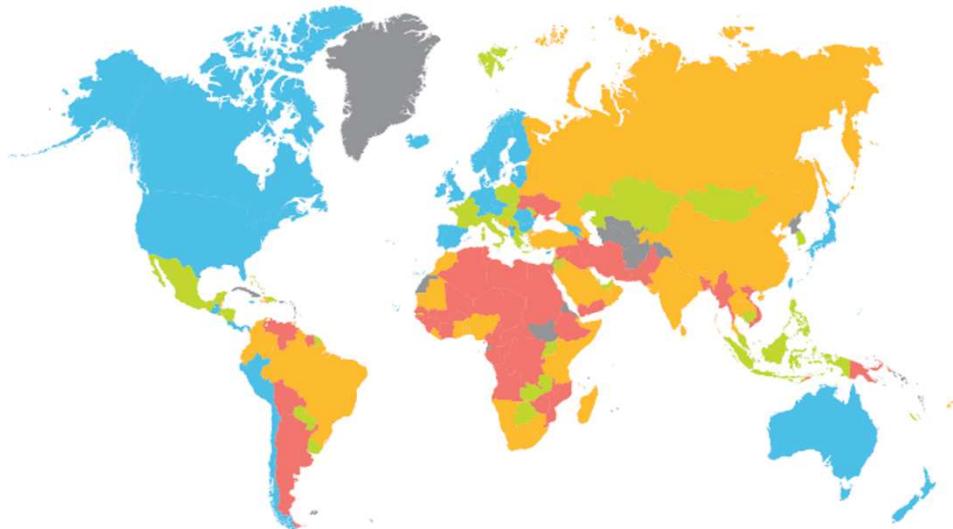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발표

##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47위

토론자: 양준모 교수

 자유기업원



 MOST FREE     2ND QUARTILE     3RD QUARTILE     LEAST FREE



### 규제의 성격

- ◆ 국민을 위한 방역조치조차 규제로 국민이 피해
- ◆ 규제로 인한 권력과 폭력: 완장 사회

국내 5대 은행 기업대별  
숙박·음식업 관련 연체액 추이

단위: 억원 / 출처: 5대은행



부 산 광 역 시  
2021. 7. 18.

## 약자와 강자

근로자 보호 논리와 실제

‘힘내서 대리점 먹자’던 택배노조... “점주 사망 날에도 웃더라”

[이무튼 주말]  
대리점주 자살 내은 노조  
숨진 이씨 동료들의 증언

신지연 기자  
입력 2021.09.11 03:00



김포 택배현장

“노조원들의 불법 대입과 업무 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 헌법과 현실

❖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국민연금의 성격:

❖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

❖ 국민연금법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국민연금, ESG 투자 450조로 늘린다지만... '오락가락' 잦아 여전

'법도 뚫개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한국경제

프린트 | 닫기

## 문재인 대통령 발언 영향?... '반5·贊4' 한진칼 결과 뒤집힐지 '주목'

입력 2019-01-28 17:43 수정 2019-01-29 01:29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이사 해임, 정권 변경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 행사 여부 및 범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위원 과반수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했던 지난 23일 회의 결과가 뒤집힐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민연금 스튜어디스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관련 발언이 회의 재소집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기업 대주주의 위법·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디스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찬반의 비율은 2:7로 찬반을 각각 2명, 7명

# 가격 통제

- ❖ 최저임금제
- ❖ 카드 수수료
- ❖ 분양가격 상한제
- ❖ 대학등록금 통제
- ❖ 전기료 통제

## 카드사와 빅테크의 기술어린운동장' 구조

카드사	빅테크(전자금융업자)
• 0.8~2.06%	• 네이버페이 11~2.5%
• 3년 주기로 수수료를 재산정	• 카카오페이 0.96~2.24%
• 적자감수하는 '출혈 마케팅' 금지	• 빅테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구조
• 소비자 권리에 영향 미칠 경우 사전 신고	• 별도 규정 없음
	• 소비자 권리에 영향 미칠 경우 사전 보고

## 에필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23일 분수령'... 당국, 치열한 數싸움  
2021-09-14 11:42  
오는 23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에너지당국과 물가관리당국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소는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 2조2000억원 상당의 흑자에서 올해 4조원 규모의 적자로 뒤집어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물가관리당국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말뉴스

서울지역 대학총장들 '등록금 올리고 강사법 규제 완화해야'



'코로나 최저임금 쇼크' 이 정도일 줄이야... 직황 둔 자영업자 1991년보다 줄었다



# 재산권 침해

- ❓ 건설 중인 사업 중단
- ❓ 의결권 제한
- ❓ 계약갱신청구권

한국경제

## 이스라엘-이선 대주주 의결권 0%?...의결권 제한한 국가 없다

일부 기업이 일선에서는 사법, 경영권에 대해 일부 사안만 국가가 개입한다. 더 강력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자평 시작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는 일부 사안이 있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사실상 거의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주장이다. 특히 이탈리아, 일본 기업권에 반하는 관세청, 그 외의 기업에 개입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의 관련 법조항을 놓고 여러 법적정책자들과 함께 시민 단체 주장이 옳는지 검증했다. 결국 결과 이들 나라의 위법적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조항은 없었다. 본지는 관련 조항의 법리적정당성, 목적, 효과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한, 송문근 연세대 법학교수가 분석했다. 정부 개입은 당사자를 본지 인정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대주주에게만 행사 가능 제한하는 내용은 옳고 있다.

**이스라엘 회사법** 관련 법조항으로 사법에서 선진국과 대주주 관련 한류 검토

**경영권제한** "본지 인정 대주주에게 자발적 제한(대주주 권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의결권 제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대주주 의결권 제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단독] 반원, 임대차 계약갱신권 분쟁 '국토부 해서 따들게 못 된다' 손소르... 여결권 판결 또 있었다

"모든 국민에서 일정한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없다" 재판부, 판결은 물이해 '안 할때까지 계약 갱신' 가능... 임대차 계약 갱신 조항도 있다

이희은 기자

입력 2021.09.09 16:33



서울을 한 부동산 소송건수에서 한 달에, 해당 판례가 부재에 있는 것으로서 관련 재판가사들은, 현재 판례(판례)입니다.

신원율 3.4호기 건설 재계 여부



# 재산권, 가격, 계약, 경영권 등 기본적인 자유가 위협받는 나라가 되고 있다.



[토론 2]

## 토론문

---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I. 경제자유지수는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과 긴밀하게 연계

### □ 경제자유지수의 5개 분야와 정부역할

- 정부규모: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면 조세와 정부지출을 감소
- 재산권보호: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정부의 역할이 증대  
※ 재산권 침해와 세금은 적대감, 증오가 아니라 보편적인 비례율을 존중
- 통화건전성: 무분별한 총수요 정책은 자산버블로 자산가의 기득권 강화
- 무역자유: 대외 개방성을 확대할 때 정부역할에 대한 견제 가능
- 시장규제: 임의적이고 특정한 정부의 규제는 시장의 성과를 악화  
※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예측가능성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 □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 변동에 대한 추론

- 1980년대의 순위 상승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 현상; 1990년대의 순위 하락은 정치적 민주화의 영향; 2000년대 이후의 순위 증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 2010년대 이후의 순위 감소는 정치 포퓰리즘의 영향

## II. 국가 또는 정부의 본질은 무엇인가?

### □ 정부의 본질은 주권의 행사에 있고, 주권의 본질은 공동체 내에서의 강제력

- 국가란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권력에 의하여 결합된 인류의 집단"(김철수, 「헌법개설」, 2015, p.37)
- 주권(sovereign)은 대내적으로 최상위성(首長性, supremacy), 대외적으로 독립성(independence)을 가진 권위

### □ 정부란 강제력(공권력)을 동원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초기업 (Ronald H. Coase, 1960)

- "정부는 행정적인 결정으로 생산요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초기업(매우 특수한 종류의)이다. 정부는 재산을 징발하고 몰수하

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강제를 위해 경찰, 기타 사법기관을 활용하기도 한다.”

### Ⅲ. 왜 우리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 (1) 공공성의 시각

□ 국가와 정부에 대한 오해: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고 기업은 사익을 추구한다.”

- 최고의 공익성이라 할 수 있는, 인간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가?

□ 공공성, 공익성, 사회적 가치 등은 모호하고 다중적인 의미로 사용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란 ①인권, ②안전, ③보건복지, ④노동권, ⑤기회와 사회통합, ⑥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⑦일자리 창출, ⑧지역활성화, ⑨지역경제, ⑩사회적 책임, ⑪환경보전, ⑫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⑬기타 공동체의 이익과 공공성 강화로 규정

- “한편 공공성과 관련된 용어들은 매우 폭넓게 선함(goodness)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토벤 요르겐센(Torben Beck Jorgensen)과 배리 보즈만(Barry Bozeman)이 230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공공성과 관련된 가치들은 크게 인간의 존엄성, 지속 가능성, 시민 참여, 개방성, 안전성, 타협, 진실, 견고함이 있었다. 이 가치들마다 또 세부적인 가치들이 매우 다양하게 포괄되어 있었다. 공공성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들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졌다.”(정태인·이수연,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2013년)

□ 다양한 가치들이 모호하게 혼재되어 있는 ‘공공성’, ‘공익성’, ‘사회적 가치’ 등의 개념은 결국 정치인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 정치투쟁을 격화시키는 ‘다양한 가치의 정치화’를 초래.

- 구체적 사안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상호 충돌할 경우 이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결국은 임기응변적이고도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에 의존.
- 개별 주체들이 추구하는 사익적 목표에 따라 분권화(분업)가 이루어지고 그 전문성이 제고됨으로써 공동체의 공동선이 극대화되는 시장원리와 배치

## (2) 시장실패의 시각

- 시장에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기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
  - 시장실패: 독과점(시장지배력), 외부효과, 공공재, 가치재,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의한 시장실패
  - 소득분배, 경제안정화(경기대응)에 대한 시장의 무능력
- 정부개입에서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며, 시장실패는 민간의 자율성에 의해서도 상당한 정도로 해결될 수 있음.
  - 아담스미스가 지적한 자기이익(self-interest)은 이기심(selfishness)이 아니라 성취감, 이타심을 포함하는 개념.

## IV.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가?

- 왜 우리는 자발적인 해결의 노력 대신에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강제력에 쉬이 의지하려고 하는가?
  - '국가의 책임'은 곧 '강제력에 대한 의존'을 의미하며 '다른 국민들에 대한 침해'를 당연시하여 마침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
- 불가피하게 강제력을 통한 정부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대감과 증오가 아니라 상호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 약정을 합의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진화'(혁명이 아니라)의 방식을 채택해야.